



전주비전대-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인재 양성 맞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25일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북도회(도회장 이성규)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병훈 총장, 김은성 평생교육원장, 기계과 신희재 학과장,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북도회 이성규 도회장, 양태준 부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주시 산업체의 재직자 재교육, 신·중년 재취업,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성인학습자의 설비기술자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평생직업 분야 교육거점 교육원 운영 △지역품은 대학·초·중·고교 이름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공동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모데트릭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산악사고 예방 현장 조사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25일부터 남원시청과 합동으로 산악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산악 위험지역 발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소방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남원시 보절면 만행산 사고 발생 지역을 확인하고, 등산객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펜스 및 이정표 등의 설치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산악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등산로 펜스 및 안내 표지판이 부족한 구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금구면지사협, 취약계층에 생필품 꾸러미 전달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수연, 이하 협의체)가 26일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50세대에 생필품 꾸러미(5백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복가득 꾸러미지원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관내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매 후 포장했으며, 협의체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굴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 꾸러미를 전달했다. 지원 품목은 화장지, 달걀, 사골곰탕 등 14개 품목이며 가구당 10만원 상당으로 구성돼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대 역사콘텐츠학과, ‘역사에 남은 진북동’ 발간

전주 동양아파트 인근 재개발 구역의 역사적 가치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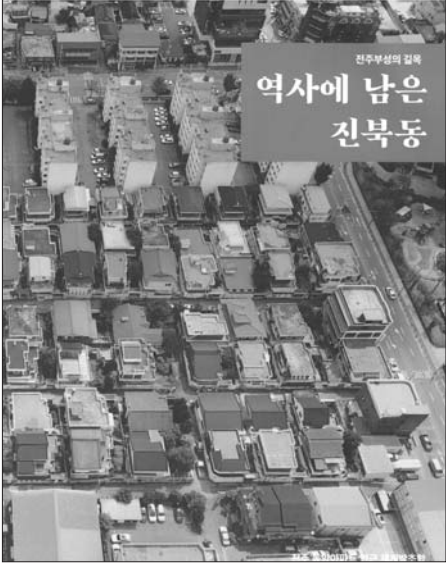
전주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진행된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 동양아파트 인근 재개발 구역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자료집 ‘역사에 남은 진북동’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동양아파트와 인근 지역이 재개발로 사라지는 가운데,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역사 속 진북동 △기록에 남은 진북동 △기록에 남은 진북동의 내일 등으로 구성됐다. 전주 동양아파트 인근 재개발 조합과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HUSS)의 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주시청, 진북일보, 전주문화재단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특히, 자료집은 지역 주민들의 기억과 함께 지역 역사와 변화를 아카이브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역사콘텐츠학과 이정옥 교수는 “진북동은 일제강점기 비행장과 제사공장이 있던 지역 산업의 중심지였다”며 “이 책은 과거를 보존하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와 변화를 담아낸 중요한 자료”라고 전했다.

아카이빙 작업에 참여한 이도형 학생(역사콘텐츠학과 4년)은 “동양아파트에 사셨던 할아버지를 인터뷰하면서, 어린 시절 자주 방문했던 아파트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이 아쉽구나, 내 손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러웠다”고 회고했다.



한편 전주대 역사콘텐츠학과는 이번 진북동 프로젝트 외에도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지역과 중노송동 기차촌 인근 재개발 지역의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해 왔다.

/장은성 기자



장수경찰서, ‘아이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장수경찰서(총경 황재현)는 부임이후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담부하면서 특히, 무엇보다도 어린이의 안전을 강조하였다.

봄철과 새학기가 맞물려 어린이의 야외활동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우선적으로 각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함께 하는 ‘아이먼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에는 장수초등학교 1학년(32명)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추기, 좌우 살펴보기 및 통학버스 안전띠 매기, 안전하게 내리기등 평소 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시각적(PPT)으로 쉽게 정리하여 강의하면서 퀴즈를 맞추는 학생들에게 노트와 연필을 나눠주는 등 맞춤형 홍보를 하였다.

황재현 장수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추진하며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실시되는 도로교통법 중 보행자보호의무 즉,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앞 우선멈춤을 홍보하고 때에 따라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전하였다.

/장수=고판호 기자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자율방범대와 야간 합동순찰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 역전지구대(대장 우영순)는 최근 자율방범대(대장 양동근)와 인과 밀집지역인 연지시장, 정읍역 주변과 범죄취약지역인 여성안심귀가지역, 원룸촌 밀집지역 등을 돌며 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지킬수 있도록 예방 순찰을 실시하였다.

이날 합동순찰에서는 관내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증가하는 피싱사기의 위험성을 알리며 고액 현금·수표·외화출금 인출시 주의하도록 하는 등 범죄예방 요령을 홍보하였다.

역전지구대장은 “역전지구대와 자율방범대는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관내 사건·사고 다발 장소 및 치안 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예방활동을 통해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소방서,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최근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비응급환자가 증가하면서, 정작 위급한 응급환자가 신속한 구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창소방서는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비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심정지, 뇌졸중 등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제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할 수 있으며, 제한된 구급차와 구급대원이 비응급환자 이송에 투입되면서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비응급환자의 119 이용이 증가하면 응급의료기관과 시설 이송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고창소방서는 지속적으로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119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보절면, 면민의 장 수상자 4명 선정

내달 12일 제31회 보절면민의 날 기념식서 시상 예정

남원시 보절면(면장 김대기)은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면민의 장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

산업장 수상자 고영찬 씨는 지속적인 기부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여 면민들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었으며, 효열장 수상자 김명자 씨는 병약한 모친을 모시기 위해 자신의 타지 생활을 접고 모친 곁으로 돌아와 6년째 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봉양해 주민들의 칭송을 얻고 있다.

애향장 수상자 김혜순 씨와 박재근 씨는 각각 보절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전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보절면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향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절면은 오는 4월 12일 제31회 보절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부문별 수상자들에게 면민의 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산업장 고영찬



효열장 김명자



애향장 김혜순



애향장 박재근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순천지사 010-2333-4791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호치지사 010-8645-9935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63-6999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